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0호 [루게 제25048호] 주제 104 (2015)년 9월 27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혜산시에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공격전의 기세 드높이 10월의 대숙청전에 힘차게 들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혜산시에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상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려사의 땅에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게 된 도내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학생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5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판을 드러온 대형기구들이 띄워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방영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외위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김기남동지, 박병기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도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상진 방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국 방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부 일꾼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방강도의 책임일꾼들이 하였다. 순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폭동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수많은 고무총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인민위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탄생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고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방강도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러 방강도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판이 띄워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혁명의 발전이고 승리의 상징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올라 빛나는 방강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경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모두의 가슴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으로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강도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나라를 찾기 위해 피땀 흘려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과 삼지연, 보천보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고 또 찾으면서 혁명사적사업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하시는데는 평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의 기치높이 민족의 자주권과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면시켜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현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의 자욱은 백두산이 높이 솟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방강당에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자구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

적타격을 주고 민족재생의 새 아침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43(1954년) 10월 방강도를 새로 내오도록 하여주시고 수심차에 걸쳐 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나아가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대추단지구를 오늘 청산리,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단위로 건립시켜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백두대지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혜산청년광산, 혜산신발공장, 혜산강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며 도의 경제사업전반을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친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진척지들에 대한 력사적인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삼지연대기비를 비롯한 혁명전적지건설을 전두지휘하시어 방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대추단지구를 오늘 청산리,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단위로 건립시켜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백두대지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혜산청년광산, 혜산신발공장, 혜산강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며 도의 경제사업전반을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친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용맹과 위훈의 활무대인 발전소건설장으로 온 나라 청년들을 불러주시였으며 외국방문을 마친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청년들격대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며 산세혈한 건설장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같이신분은 정녕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에는 힘수지역 인민들에게 건설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백두산기슭에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무용대원을 펼쳐주시것을 비롯하여 방강도를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펼치는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은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방강당이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오늘날 현실은 언제나 방강도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도가 나아가길 위한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팔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언제나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몸가까이 뵈오며 자애로운 그 품속에서 천만년 살고싶어하는 방강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소망을 헤아리시어 북부국경관문도시인 혜산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방강도안의 전체 인민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그는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고고 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조선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경다해 받드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바치는 우리모두의 가장 순결한 향심과 도덕의리가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교양, 도덕교양에 최력을 집중하고 백두산자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욱 훌륭히 꾸리며 방강도를 그 어느 고장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이 세상에 나뒀는 곳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안의 경제건설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혜산시를 비롯한 도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감자농사의 통상운을 더 높이 부름으로써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애정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신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애정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백두대지에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침수지역 주민들 새집들이 진행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지구에 새로 생긴 마을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백두대지의 산발을 뒤흔들며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인민사랑의 장정을 펼친 것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조선인민군인들이 결사의 낮과 밤을 이어 훌륭히 완공한 백암군 유령지구와 황토지구, 동계지구의 140동의 살림집에서 26일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된 기쁨과 환희로 하여 새집들이가 진행된 살림집지구들에서는 웃음과 노래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환경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때에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새집들이가 진행된 것은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발전소지구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새 풍경이 생겨난 현실이 너무도 몸만 같아 새 집입사증을 받아안은 백암군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환희와 격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해빛도 찬란한 가운데 울긋불긋 꽃송이들로 장식한 자동차들이 인민들을 태우고 살림집지구로 서서히 들어섰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백암군 인민들이 연도에 나와 새 집에 입사하는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다

자기들에게 차려진 것만 같아 웃음 질반, 눈물 질반으로 감격을 감지 못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들격대원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인민군인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백암당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백암군당책임비서 고재길동무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 군에 이렇게 희한한 별천지가 일떠서게 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래면 무조건 결사판철하고야마는 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들의 영웅적투쟁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에 인민군인들은 없습디다. 그러나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바친 그들의 충정과 위훈은 서두수의 푸른 물과 더불어 우리 백암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심심산골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그토록 바라

는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힘찬 투쟁을 벌려온 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들의 그 위훈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오라.

인민들이 언제나 꽃속에서 웃고 노래부르기를 바라며 일곱편이나 떠다심어 팔팔내 뿌리를 내린 수많은 코스모스의 일쇄들이 그들의 위훈을 말없이 전하여주는 듯 가뭇게 설매이고 있었다.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 청년들격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새 집으로 들어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행복의 보금자리에 살림을 겨게 된 사연을 절절히 아뢰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가가신 살림집에 입사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유령림산업소 작업반장 정영학은 눈물여 젖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자기들도 미처 생각할 수 없었

던 불쏘시개까지 마련하여준 그 손길에서 인민들은 우리 당을 왜 어머니라 부르는지 다시 한번 뜨겁게 절감하였다.

백암군 황토고급중학교 역전분교 분교장 송은철은 당의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보니 우리 나라는 진정 인민의 세상이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좋은 제도를 대를 이어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후대교육사업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인민들의 모습은 그대로 강성국가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앞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이 현실로 펼쳐지는 이 땅에서 삼며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인 것이다.

황토지구의 살림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겨게 된 백암철도

분국 하향토역 로동자 최명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두메산골에 별세상, 별천지를 꾸려놓은 청년들격대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살림집의 타일 하나, 장작 한가치도 무시히 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들격대원들이 정말 다름디다.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이런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청년강국의 기둥감들을 키워주신 우리 원수님께 삼가 큰절을 올립니다.》

당의 사랑과 은혜를 한껏 느끼며 새집들이를 진행한 인민들은 흥겨운 춤판을 펼치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받아안은 이 사랑, 이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갈 불같은 열의가 한껏 어려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춤을 추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

보며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자강도려단 려단장 김근식은 말하였다.

《여기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백두대지의 불야경과 함께 떠저 오를 인민들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의 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안겨준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의 영예와 긍지를 한층토록 간직하고 언제나 강성국가건설의 물과 구를 열어제끼는 전위부대가 되겠습니다.》

백암당의 두메산골들에 일떠선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는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만사람의 심장속에 새겨주며 해빛을 받아 더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백두대지에 펼쳐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새 풍경은 우리 당의 70년력사와 더불어 청년강국의 역센 기둥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에 빛나는 한페이지 기록될 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침수지역 주민들

